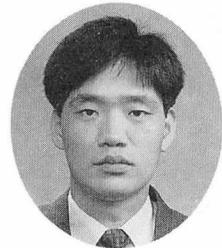


국제규격돈 생산을 위한

사양 관리



권혁만
(유전자원(주) 판매관리과)

들어가는 말

UR 협상이 '93년 12월 15일 타결된 이래 한국의 농축산업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의식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더욱더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이러한 국내의 분위기는 일찌감치 국내 농축산업이 외국의 농축산물에 의하여 붕괴되리라는 성급한 비관론과 위기를 이용한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2000년대를 준비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필자 또한 후자와 같은 생각을 갖고 본고를 쓰고 있다.

이러한 위기속에서 정부는

돼지고기 수출종합대책을 발표하여 2,000년대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의 주축이 될 돼지고기 수출단지 40개소를 만들 예정이며, 2003년 10만톤의 돈육수출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제규격돈을 생산하기 위하여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관리 방법과 사료급여체계 등을 서술하고자 한다.

몸 말

1. 우수한 국제규격돈을 생산하기 위한 의무 및 권장사항

정부는 '94년 2월 국제규격돈 생산장려금 지급 요령 설명회에서 국제규격돈을 생산하기 위한 의무 및 권장 사항을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제규격돈 생산농가의 의무사항은 수태지의 거세 실시와 유해잔류물질 방지를 위한 비육돈후기 사료 급여 및 출하 전 휴약기간의 준수를 명시하고 있다. 권장사항으로는 ①종돈과 사료가 동일하여 균일한 규격돈을 생산하고, ②매년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생산비 절감 및 도체등급의 향상, ③출하체중을 105~120kg 및 암수 분리 사육을 강조하고 있다.

2. 거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규격돈의 출하체중이 105~120kg이기 때문에 이 체중까지 성장한 수태지의 돼지고기는 웅취가 나게 마련이며,

소비자가 수돼지 냄새가 나는 돼지고기를 사먹지 않게되므로 거세를 실시하여야 한다.

거세는 정소를 제거하며 비육의 효과를 높이고 육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거세 일령이 빠를수록 출혈도 거의 없고 상처의 치유도 빠르다. 자돈의 체력이 붙고, 이행향체의 양도 많은 생후 5~7일령 전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가. 거세 방법

①보정 : 돈방 철책을 이용하여 보정한다.

②소독 : 옥도를 이용하여 음낭 주변을 소독한다.

③정소의 고정 : 정소의 양측을 인지와 엄지로 음낭을 덮어 쓴 정소를 눌러서 고정한다.

④절피 : 정소의 윗쪽을 단번에 절피하면 정소는 스스로 노출된다. 절피에는 안전 면도날을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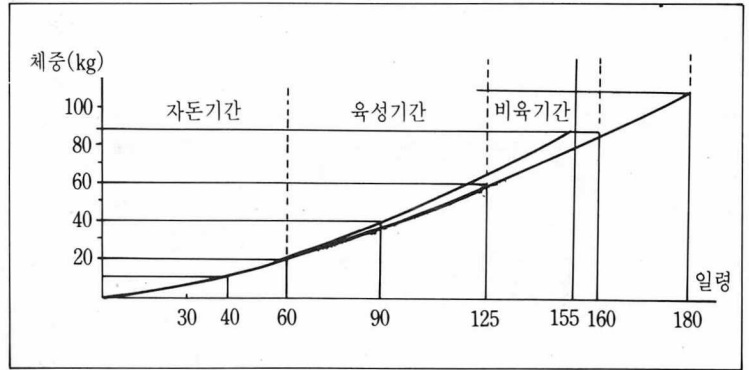
⑤정소 적출 : 정소를 꼬집어 낸다.

⑥정소의 절단 : 정소 조직을 남기지 않도록 충분히 꼬집어 내어서 절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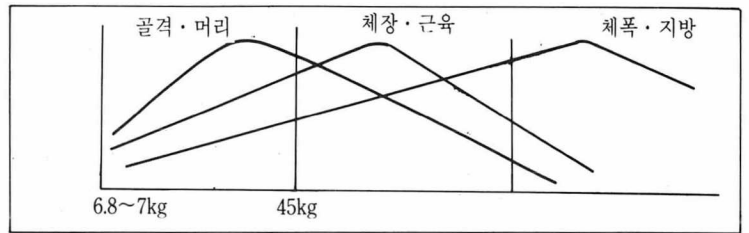
⑦수술후의 소독 : 상처부위를 옥도 등을 이용하여 스프레이로 뿌려준다.

3. 비육돈의 성장 형태

자돈에서 육성기까지는 주로 근육과 골격의 발달이 이루어



〈그림 1〉일령별 체중 성장곡선



〈그림 2〉육성비육돈의 표준성장 Type

지고, 비육기에는 근육의 조성이 완성되고 지방 축적이 활발해진다.

이러한 발육은 돼지의 품종과 급여사료의 품질, 사양기술,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개 50~60kg 전후에 가장 왕성한 발육곡선을 나타낸다

〈그림 1, 2〉에서와 같이 생후 130일령을 전후하여서는 근육의 성장보다 지방의 성장이 많고, 지방 1kg의 성장에는 살코기 1kg 성장에 비하여 약 두배의 사료가 필요하므로 비육후기에 사료급여 형태는 에너지가 낮은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4. 사료급여 프로그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육돈의 사료급여 프로그램은 성장함에 따라서 성장단계에 맞는 여러가지 사료를 단계적으로 급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여러가지 사료를 취급하는 불편함과 빨리 성장시키려는 사양가의 계산으로 젓먹이 사료와 육성돈 사료만 급여하고 출하하는 농장이 많이 있다.

그러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에너지 사료(육성사료)를 급여하여 속성 비육·출하 보다는 저에너지 사료(비육후기)를 급여하여 출하하는 것이 생체 kg당 증체 사료비가 적

게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의 실험은 사료 급여량을 무제한으로 급여한 경우와 무제한 급여량의 20%를 감량

하여 급여한 시험결과로서 사료내의 에너지를 제한하거나 사료량의 제한한 경우가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급여사료의 에너지 제한 효과(축시 1988)

구 분	3.4m cal DE/kg	3.0m cal DE/kg
105kg 도 달 일 령(일)	172	181
일 당 증 체 량 (g)	723	639
사 료 요 구 율	3.82	4.11
등 지 방 두 께 (cm)	2.57	2.28
1kg증체에소요된사료비(원)	589.4	587.3

<표 2>급여사료의에너지 제한 효과(축시 1988)

구 분	3.4m cal DE/kg	3.0m cal DE/kg
105kg 도 달 일 령(일)	172	189
일 당 증 체 량 (g)	723	638
사 료 요 구 율	3.82	2.04
등 지 방 두 께 (cm)	2.57	2.28
1kg증체에소요된사료비(원)	589.7	509.4

* 시험기간 : 53.0~103.8kg

<표 3>사료교체 일령의 예

일 령	7~32	33~60	61~90	91~140	141~180
급여사료	prestarter (입질사료)	starter(갓난사료)	젓먹이	육성돈	비육후기

<표 4>동물약품의 휴약기간

구 분	휴약 일수	비고	구 분	휴약 일수	비고
겐타마이신경구제	14	수용산	엠펜실린경구제	1	수용산
겐타마이신주사제	40		엠펜실린주사제	15	
네오마이신경구제	20	수용산	에리스로마이신	7	
바스트라신	0		옥시테트라사이클린경구제	26	수용산
버지니아마이신	0		옥시테트라사이클린주사제	15~26	
디하드로스트렙토마이신	30	수용산	클로로테트라사이클린	5	첨가제
디하드로스트렙토주사제	30		타이로신경구제	2	
스피라마이신	14	수용산	타이로신주사제	4	
스피라마이신주사제	28		페니실린주사제	7~30	
설파디메톡신	7	수용산	카바독스경구제	70	
설파모노메톡신	7	수용산	푸라졸리돈	5	첨가제
설파메타진경구제	15	수용산 첨가제	클로피돌	5	

결국 단계에 따라서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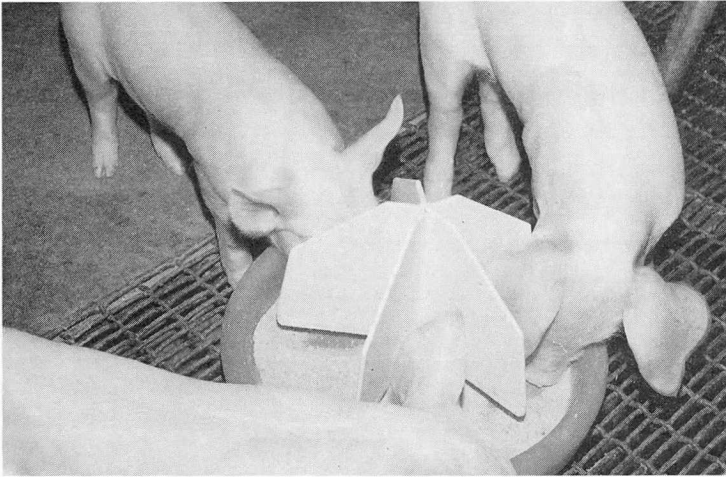
그러므로 사료급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교체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육후기사료를 30일 이상 급여하는 것은 육성돈사료에 첨가되어 있는 항생물질의 휴약기간을 충분하게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제성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5. 돼지고기중의 유해잔류 물질 방지 대책

축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물약품중 유해물질로 분류된 약품들은 가축의 체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약리작용을 하고 나면 대부분 오줌이나 분변을 통하여 체외로 배출된다. 돼지에 투여한 약제가 잔류허용치 이하로 배출되는 기간은 약제의 종류, 투약량, 투약기간, 투약방법, 약제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되며, 일반적으로 출하 35일 전에는 약제의 투여 및 주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표 4>에서는 이러한 약제들의 휴약기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휴약기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돼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약기간이 필요하다.



환돈으로 치료를 하던 돼지는 반드시 휴약기간이 경과한 후에 출하해야만 유해잔류물질 검사 및 국제규격돈의 TLC 검사를 통과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환돈을 가급적 출하하지 않는 것이 좋다.

6. 돈군의 편성 및 사육밀도 수출목적으로 비육돈사에 자

돈을 돈방으로 이동시에는 돈군 편성이 매우 중요하다. 돈군의 편성은 암·수, 거세돈의 분리를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강약을 구분하여 위축돈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사육밀도는 평사일 경우 평당 3두, 스노크돈사일 경우엔 2.7두, 발효돈사일 때는 2.4~2.6두가 되며, 동절기에는 +10%,

하절기에는 -10%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

맺음말

이밖에도 돈사의 온도, 환기, 사료관리, 출하관리 등 중요한 것이 많이 있으나 지면 관계로 줄이기로 하고, 출하체중을 105~120kg으로 조절하기 위해 육안에 의한 출하 체중을 평소에 익혀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국제규격돈의 조건인 수돼지의 거세 실시와 휴약기간의 준수, 비육돈후기사료의 교체 일령을 반드시 지켜야만 국제규격돈으로 출하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하고, 우리 양돈업자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한국 양돈산업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